

사실에 기반을 두어
판단하자

LIE or
TRUTH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현술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과거부터 유래한 풍습으로 에이프릴 폴스테이(April Fools' Day)라고도 하며,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 바보(April fool)라고도 부른다.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1년 중 하루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는 식의 공동일탈로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거짓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문과도 같은 이 물음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구수가 증가하고 생존을 위한 상호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본능적 충동에 기인, 독버섯처럼 자라나며,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거짓말 중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 좋은 뜻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다. 스스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충격과 상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fact, 진실 또는 실상)을 숨기는 배려이자 지혜인 셈인데 기꺼이 용납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이 암에 걸렸을 때 사실대로 알려 드려야 하는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과거에는 선의의 거짓말로 알려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다르다. 남은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시대와 판단의 척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거짓말은 학술적으로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허위를 진술하는 '작위에 의한 거짓말(lies by commission)'과 소극적으로 일부 정보나 사실을 누락하고 진술하는 '부작위에 의한 거짓말(lies by omission)'이다.



이와 다르게 분명히 사실 또는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말인 경우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로저스 교수 등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속이는 일은 가능하며, 흔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 방법을 자주 쓴다고 한다. 이를 ‘호도성(糊塗性) 거짓말(lies by paltering)’이라고 표현하며, 거짓말의 제3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실만’ 진술해서 속이는 ‘교묘한 거짓말(artful paltering)’이다. 호도성 거짓말은 논점을 회피하거나 불완전한 표현을 하거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무시하거나 선택적이고 편향된 진술 및 과장과 왜곡을 하는 행위 등이다. 말끝을 흐리거나 얼버무리, 불성실한 발언 및 행동, 고의적으로 불분명하게 만드는 거짓말 등이 이에 속한다. 풀을 칠해 덧씌우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경우로 일상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폐해도 크다고 한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협상술 강좌 상급반에 등록된 기업 경영진 중 50% 이상이 과거 협상 과정에서 간혹 또는 자주 호도성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거짓말 방식 중에서 호도성 거짓말을 더욱 선호했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거짓말이 바로 드러나기 어려워 거짓말쟁이로 인지되지 않아 재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본질적으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뒤늦게 자신이 호도성 거짓말에 당했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상대방을 가혹하게 평가하였으며, 협상 상대로 다시는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호도성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탈진실(post-truth, 포스트 트루스)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2016년 말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가이기도 하다. 탈진실은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기반을 둔 호소가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가면에 가려진 왜곡된 진실이나 정보, 인식, 개념 등이 대중적인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탈진실의 개념은 10여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Brexit referendum)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탈진실 사용 빈도가 전년도보다 20배 폭증하였다. 그래서 탈진실 정치(post-truth politics)라는 어휘에 익숙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온 사실이라는 발언을 향한 불신이 늘어났다'는 옥스퍼드 사전의 설명이 의미심장하다.

감정과 신념보다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시민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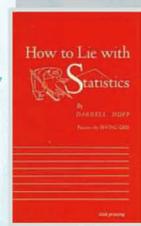


정치권과 언론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탈진실성 보도나 호소를 한다면 그 피해는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진실이 득세하는 시대에는 믿을 것이 없다. 거짓이 사실이 되는 세상에서는 사실이 거짓이 되기 쉽다. 모든 판단 기준은 마비되고 진실보다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된다. 정치권과 언론, 집단과 개인 모두가 사실에 기반을 두어 판단하자. 감정과 신념보다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시민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짓말에 속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통계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통계의 표현이 사람들의 판단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1954년 대럴 허프는 ‘통계로 거짓말하는 방법(How to lie with statistics)’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통계의 남용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게 하며, 사물을 과장하거나 극도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된다고 언급하면서 통계 수치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통계 수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사용함으로써 대중이 통계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이 책에 관해 “정부나 언론에서 보여주는 통계 수치에 속지 않기 위해 읽어야 하는 책이다. 현재 봐도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꼭 들어맞는다”고 언급하면서 1950년 이후 최고의 책 중 하나로 추천하고 있다. 이 책이 6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통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한 사례가 많았고 현재에도 통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통계 수치를 이용한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원본이나 번역본을 읽어보길 바란다.

여기서 몇 가지 소재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문자에 따른 왜곡된 결론, 평균치로 사기 치는 법,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값, 신문기사를 신뢰할 수 있나?, 그래프에 속지 말라, 숫자로 장난치기, 조작되는 통계 및 백분율로 속이기 등이 있다. 그리고 통계의 속임수를 피하는 다섯 가지 열쇠를 제시하고 있는데, 출처를 확인하기, 조사 방법을 파악하기, 숨겨진 자료를 찾아보기, 쟁점 바꿔치기를 알아내기, 상식 여부를 판단하여 석연치 않으면 조사하기 등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라고 믿는 통계도 두 눈을 부릅뜨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속기 쉽다. 이 책은 속지 않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속이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통계로
거짓말하는
방법
(How to lie
with statistics)

대럴 허프 지음
1954

과학이 발달할수록 속이는 방법도 발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속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 초등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매년 조금씩 증가시켜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학생들 키가 지나치게 커진 수치로 보고할 수 없어 정권이 바뀌면 축소해서 보고했다가 다시 약간씩 늘려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속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가짜 뉴스와 이를 선동하는 정치권이 판을 치면 그 나라는 어디로 갈지 암담하다. 거짓말을 하면 개인이 잠시 화를 피할 수는 있지만, 그 거짓은 다른 사람과 집단에 무자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개인도 이러한데 단체나 학자들이 거짓을 사실인 것 같이 발표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폐해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거짓이 판치는 국가가 국가로서 발전하고 지탱할 수 있을까? 국가의 존폐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1년 전 일본을 정탐하고 온 후 통신사 정사 서인(西人)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보고서를 황급히 써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말로 아뢰다. 그러나 통신사 부사 동인(東人) 김성일은 “전쟁 낚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을 동요시키니 이는 옳지 못합니다”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서인과 동인으로 갈린 붕당이 가져온, 조건 없는 반대 주장만을 일삼던 당시의 고질적 병폐가 가져온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당시 동인세력이 강해 서인이 직언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견은 묵살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대립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7년 간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뼈아픈 고통을 낳게 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데 현재에도 이러한 역사는 되풀이 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당(與黨)이 말하면 야당(野黨)은 반대로, 야당이 말하면 여당이 반대한다. 이보다 쉬운 정치하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학습하고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가? 돈이 드나. 시간이 드나. 오로지 애민을 향한 일념 하나로 모든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면서 반대만 일삼으면 되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다. 남을 위한 희생이라고 자청하면 또 어떨까? 거짓말을 하는 자신조차 거짓말인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몰라서 거짓말을 했다면 알기 위해 책도 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서로 만나 진지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혀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각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실을 진술하면 손해를 본다고 예상될 경우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약간의 거짓을 섞기 십상이다. 이 경우 과거에 내가 한 말을 꺼내 확인해 본다면 그건 어떨까? 녹음해두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녹음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일 또한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올까? 만약 누구나 녹음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이러한 사회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힘든 지옥일 것 같다. 그렇지만, 더 정직한 사회라며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혼란스럽다. 거짓말과 참말의 경계가 있을까?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명확하고 절대적일까? 거짓말이 참말로, 참말이 거짓말로 둔갑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하나? 모두가 해결을 요하는 난제임에 틀림없으리라.

자신을 위한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남의 거짓말에 속지도 말자. 이를 위해 나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를 위한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각자 모두 철저히 반성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에서 출발, 점점 자신이 속한 학교,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자. 언론과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며, 학자들은 솔선수범해 거짓되지 않은 참고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종교, 언론, 정치 모든 영역에서 거짓과 위선의 장막을 벗기고 광명정대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일의 시작은 개인 각자여야 하고, 현명한 국민 각자의 몫이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 가장 큰 이슈는 가짜 뉴스 타파라고 한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메시지이다. 가짜 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자. 가장 먼저, 언론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지만, 언론의 오보를 막는 건 깨어있는 국민, 우리 각자의 몫이다. 🗣

참고문헌

1. 박영훈 역서. 새빨간 거짓말. 통계. 17쇄. 대럴 허프 저. 더블어책. 경기도 파주시, 2015.
2. Huff D. How to lie with statistics. 1st Edition. 1954.
3. Rogers T, Zeckhauser R, Gino F, Norton MI, Schweitzer ME. Artful paltering: The risks and rewards of using truthful statements to mislead others. 2017 Pers Soc Psychol;112(3):456-473.